



제2352호 2024. 6. 9. **연중 제10주일**

제1독서 : 창세기 3,9-15

제2독서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4,13-5,1

복 음 : 마르코 복음서 3,20-35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마르 3,35



Sr.WonGabriela

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



✦ 화 답 송

✦ 복음 환호송

✦ 영성 체 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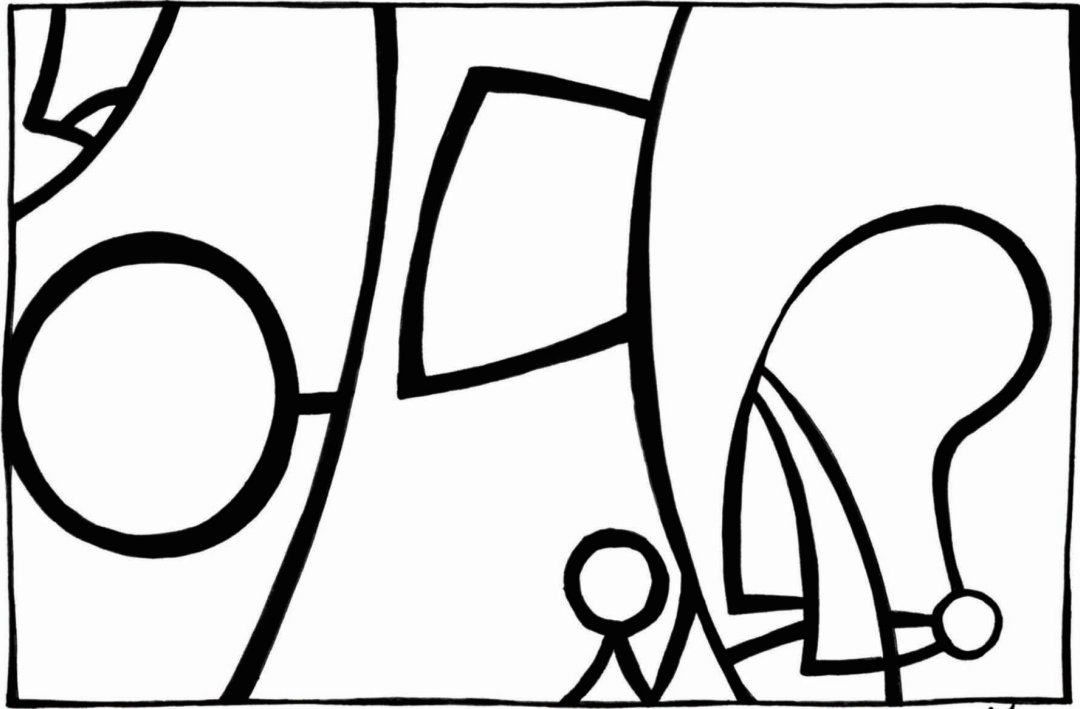
◎ 알렐루야.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말씀그림



● 말씀그림에 숨어있는 한글을 찾아보고 예쁘게 색칠하세요,

2021. 10. 30

주 하느님께서 “○○○○○○?”

하고 물으셨다. “○○○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 말라고 명령한 그 ○○○○○를

네가 따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저를 꺾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

◇ 제1독서 <창세> 3,9-15

● 오늘의 독서를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하느님의 참 가족

작은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신부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행복을 느낀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고는 하지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믿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언제나 응원해 주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기에 용기를 얻고 씩씩하게 살 수 있습니다.



14지구 동작동 성당
문필정 바실리오 신부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나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란, 바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 하는 친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자주 할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참된 가족이 되어 가고, 그러면 행복한 일들이 더더욱 많아지게 될 거예요. 우리를 응원해 주는 가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작은마음 친구들 모두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면서 이번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 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②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 ③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④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 제 목 분리수거

☆ 수 상 자 하린 에스텔 (답십리 성당 3학년)



지난 6월 5일은 국제 사회에서 지정한 '환경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환경의 날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실천하는 날이에요.

에스텔 어린이는 지구 환경을 위해 '분리수거'를 강조하고자 그림을 그려 주었어요. 쓰레기 분리 배출로 지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어린이의 모습에 예수님도 흐뭇한 표정으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우리 작은마음 친구들도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